



김은경

일신방직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된다,
그런 힘을 얻었죠



일신방직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된다, 그런 힘을 얻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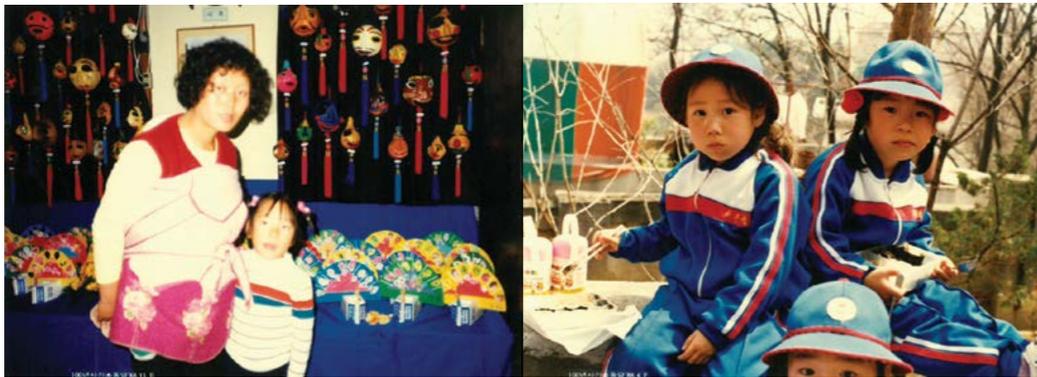
생애 개요

82년생 김은경. 김은경은 전남 나주에서 전신전화국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중 가운데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사회인으로 바깥 활동을 잘하시고 인정받는 분이었지만 그리 살가운 분은 아니었다. 김은경의 네 살 터울 오빠는 이복형제로 주로 외가에서 자라 방학 때나 만나는, 가깝지만 거리감이 있었던 혈육이었다. 여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여동생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셔야 했다. 김은경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같은 딸, 그러면서도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끼며 일찍이 홀로서기를 예감했던 아이였다. 진학할 고등학교는 자연스레 나주여상으로 정했다. 취업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별 기대를 하지 않은 학교에서 관현악단원이 되어 바이올린을 켜면서 재미와 열정을 느꼈다. 그러나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삼년을 해오던 바이올린을 포기했다. 고교 졸업 후 역시나 취업이 잘 된다는 이년제 대학 회계학과에 입학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학비만 대주셨기에 교재, 차비 등은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졸업 후 바로 일신방직에 취직하여 집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독립하였다. 거기서 보낸 육년은 은경의 삶을 통틀어 가장 힘들고 역센 시간이었다. 거기서 버텨낸 시간이 이후의 삶에서 어떤 힘든 일도 버티고 견디는 힘의 원천이 되리라곤 당시엔 정말 몰랐다.

육십대와 사십대 언니들이 만난 김은경은 삶에 대한 긍정성, 성실, 타고난 생명 감각으로 다져진 이었다. 그 나잇대 여성 중에 보기 드물게 치열했던 삶을 꾸려간 안아주고 싶은 여동생, 역센 생명력을 가진 '82년생 김은경'이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슬픈

저는 전남 나주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한 번 결혼하셨고 그때 오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저랑 여동생을 낳았어요. 아빠는 전신전화국에서 설치 일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죠. 오빠는 저랑 일곱 살 차이 나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보다는 거의 외할머니가 키우셨죠.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외할머니의 엄청난 사랑거리였어요. 방학 때나 볼 수 있었던 오빠는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꽤 오랫동안 인정하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켰다면 어땠을까 싶죠. 엄마는 평생 동생을 돌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엄청나게 알뜰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아빠 눈치 보랴 동생 보랴. 실상 저는 중간에 끼었다고 해야 하나..... 관심을 받고 그러기가 힘들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를 되게 많이 봤고 아직 어리니까 장애인 동생, 이복오빠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했고,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은 보통 다른 집처럼 평범해 보였지만, 남들 앞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그런 슬픈 요인들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등에는 동생이 업혀 있다.

7살 유치원 소풍때
오른쪽이 김은경

바이올린에 빠진 소녀의 좌절

때가 되니 초등학교 가고 남들 가듯 나주중학교 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딱히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뭔가 집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상고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상고 공부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안 맞고 그랬어요. 그때 교내에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선후배 간에 분위기도 좋지, 수업 많이 빼먹어도 된다 하지, 대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연습한다고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게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이올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대회 나간다고 외부에서 다른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같이 준비를 하는데 선후배 분위기 하며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 첼프로 칭찬이란 걸 받아봤는데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거 다 잊고 바이올린 켜면 너무 좋았어요.



유치원 시절 포도밭 견학 때 찍은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고등학교 이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벌어서 광주까지 레슨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고 '나, 이 길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안 줄 게 뻔하니까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애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백오십부씩 돌리는데 나는 자전거로 하니까 그만큼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래가지고 기언치(기어코) 나도 오토바이를 배워서 결국은 내 힘으로, 그걸 다 실어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이백부 돌리고 와서 오십부 더 받아가지고 이백오십부를 다 돌렸죠. 그 돈으로 레슨비를 냈죠. 그때 돈이 이십만 원인가 했는데 선생님이 제 상황을 보시곤 좀 깎아 주셨어요. 그렇게 배우고 다녔는데 한번은 광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아빠한테 "딱 한 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아빠 말이 "니가 그쪽으로 나가면 그 비용을 누가 다 감당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벌어서 하면 되지" 했더니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케어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러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 날 이후로 딱 접었어요. 그냥 탁! 놔버렸어요. 삼년을 이어가던 것을.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진짜 내

나이 육십이 되어서도 내가 여유돼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고 싶어요. 내가 유일하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행복했죠.

한번은 한창 멋 부리고 싶을 나이인데 친구가 산 통굽 신발이 사이즈가 안 맞다고 나보고 “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게 신고 싶은데 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나, 이거 신발 사게 만 원만.” 이랬다가 그 신발로 맞은 거죠. 그 날 아빠는 회식하다가 ‘뉘 집 자식은 공부를 잘하네, 뉘 집 애는 뭐가 잘 되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신발 사게 돈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신 거죠. 그때 호되게 혼나고 몇 마디 반항하고선 완전히 접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집이 처한 상황,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일찍 알아버렸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어요.

고3 때 한 오개월 정도 SK하이닉스로 현장실습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받은 인상이 너무 안 좋았죠.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좋아. 그런데 텃세도 너무 심했고 혼자 가서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정도 없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기본교육 없이 바로 현장 들어갔는데 너무 공장이 뻑뻑하게 있으니깐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인간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텃세를 견디면서 버텨야 되구나’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줬고 주식도 준다고 해서 좋았지만 그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일신방직은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내가 뭐라도 스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원서 넣고 광주서영대학 회계학과를 간 거죠. 그때 처음으로 선후배, 타 지역에서 온 동기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 딱 학비만 주셨기 때문에 나주에서 오가는 통학비, 교재비, 식대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런 거는 내 스스로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알바를 했어요. 애들이랑 노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알바가 우선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친구들이 “아, 뭐냐. 같이 좀 있자” 해도, 나는 알바를 해야 그 담도 있는 거니까 가는 거죠. 어울리는 그룹에서는 그래도 제가 분위기도 이끌고 했기 때문에 원망을 듣기도 했죠.

그 당시에 오랫동안 엄마는 동생 돌보라 살림하라, 오빠는 공부를 잘했으니깐 그 뒷바라지 하라, 너무너무 아끼고 살았어요. 비닐봉지 한 장, 휴지 한 조각도 허투루 쓰질 않았죠. 그래서 그런가 저는 항상 현실을 인정하려고 했고 지금 현재의 나보다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거 같기는 해요. 그럴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돈이었고,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내가 아프더라도 약값을 내고 병원비를 대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도 안 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는 나는 자식이긴 한데, 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일신방직에 간 거죠.



대학 졸업식때의 모습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오른쪽이 김은경)

일신방직을 만났다, 포기하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데 그때가 IMF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난리일 때예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미 바깥 맛을 봐버렸으니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집을 구하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하지?’ 하던 차에 일신방직 채용공고 포스터를 봤어요. 엠코⁵⁹ 같은 데를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건 또 나주 우리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무섭더라고요. 엠코는 첨단이었는데 일신방직은 조금만 걸어가면 증장로 가는 길에 수창초교가 있고 그 앞에 백육십번이 다녔어요. ‘백육십번 타면 집에 가기 제일 가깝네’ 그런 생각을 했죠, 세상에.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우물

59 엠코코리아(전 아남산업) 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소재).

안 개구리였죠. 침단이 뿔이 멀다고 엠코 말고 일신을 갔으니까요. 알아보니 일신방직은 기숙사도 저렴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교대근무라는 것도 그때는 좋아 보였고, 공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지, 알바 같은 거 많이 해 봤으니까’ 이런 생각에 들어갔죠.

회사가 커서 처음에는 대기업인 줄 알았어요. 생산적인 거는 알았지만 일단 모든 조건이 나랑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로 입사해야 되겠다’ 하고 면접을 봤죠. 처음에는 사람들 말이 “야, 일신방직 다니면 부자야, 그 동네에서 부자야” 이려고, “거기 기아타이어랑 금호타이어랑 맞먹는다”고 하고, “거기 여자애들 진짜 돈 많아, 돈 많이 벌고. 그 여자들 꼬실려고 남자애들도 막 달려든다드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가서 한 이주간 교육을 받는데 회사가 걸보기에 번듯하고 사무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교육실도 딱, 딱, 따로 있고 식당도 중앙식당이 딱 있고, 기숙사 되어 있지, 기숙사 가는 길에 왼쪽 옆에 수영장, 어린이집, 사택,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체계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각자 업무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 거예요. 교육할 때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들 말고도 인성교육, 자아 찾기, 정신교육, 이런 교육이었는데 재밌고 좋더라고요. 교육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이 회사에 오면 정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회사 첫인상이 좋았죠.

근데 막상 제 작업 배치를 받고 배우는데 그 걸보기와는 다르게 작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모든 생산직이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화장실도 거기가 수세식이긴 했어요, 타일이 깔렸으니까. 근데 진짜 간이 화장실보다 못해요, 진짜. 화장실 가면 막 진짜 지금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작업장은 온도가 삼십팔 도에서 사십이 도 정도 되었어요. 그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실을 잇고 기계 점검하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사흘 일했나?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돌아와서 열두 시간을 내리 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또 그만두면 집을 구해야 되고, 내 생계를 위해서는 쉽게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당장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그 당시 제 상황에서는 싼 방값에 싼 식비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나만 잘 버티면 여기가 제일, 내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정방이라 해가지고, 두꺼운 실이 나오면 그거를 조금 더 얇게 이렇게 펴지고 중간에

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끊어지거나 하면 무릎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큰 두꺼운 실이 돌면서 실이 이렇게 내려오면 나무 기둥이 있어요. 그 나무 기둥에 얇은 실이 내려와서 막 감겨요. 우리 그 옛날에 실타래 감듯이. 그래서 막 감겨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무릎으로 멈춰서 브레이크 잡고 그 실의 기둥을 빼가지고 실을 빼서 넣고 다시 실을 잇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실이 내려오면서 잘, 부드럽게 그 이음새가 티가 안 나게 잘 이어져야지, 이게 실이 잘 뽑아지니까 중간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롤 베이너에 실이 안 감겨야 돼요. 근데 그게 자주 감겨요,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칼 같은 것으로 제거도 해주고. 또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 돌아가버리니까 살 그냥 끊기는 건 기본이에요. 그 안에 거 손 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던 허벅지에 힘이 빠지거나 해서 돌아가버리면 손가락 잘려 들어가죠. 한 줄에 기계가 여덟 대에서 열두 대까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런 라인을 세 줄 정도 맡았어요. 그거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돌리고 돌리고 하는 거라 그만큼 몸이 썩어야 돼요. 중간에 실타래 막 날리는데 그거를 정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막 뛰어다니면서. 실이 감기거나 하면 풀어주고 다시 이어주고 풀어주고 다시 이어주고 이런 작업도 하면서요. 어찌 됐든 사람 몸이 들어가야 작업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다 나오면 이만한 실뭉탱이가 돼요. 이게 한 개 무게가 한 3.2kg 되거든요. 그거를 세 개씩 해가지고 흰 비닐에 싸요. 그렇게 싼 것을 또 세 개씩 해서 한 박스에 포장해서 담거든요. 맨 마지막에 포장하는 데를 하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일하는 언니랑 친해가지고 거기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포장하기 전에 나온 실을 사십도가 넘는 사우나통 같은 데다가 3kg 여섯 개씩, 18kg를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박스에 가지런히 담아야 됐어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우나통 같은 데다 넣고, 끌어올려 빼는 거는 기계가 하지만, 그거 빼고 사우나에 들어갈 통에 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게 진짜 힘들죠. 담고 박스 포장해서 테이프 칠까지 사람이 하는 거죠. 진짜 힘들어 죽어요. 진짜 죽어.

실이나 솜뭉치가 있다 보니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화재도 많이 났고 남자분들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 작은 불씨 때문에 숨이라서 금방 번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장 몇 개가 난리 난 적도 있었고. 안전교육도 미비하지, 비상대책 이런 것도 좀 더 만들어놔야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어요. 야근하는 사람들은 날 새고 근무를 하잖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까딱하면 진짜 손가락 부러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팔이 막 찢어져도 그냥 이거는 단순히 타박상인 거야. 내가 팔이 찢어져서 열두 바늘

을 꼬맸는데 이거는 그냥 타박상인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도 그거 들고 가서 병원 가서 이어서 다시 돌아와 일하는 거죠.

기계가 나인지 내가 기계인지

말이 여덟 시간 근무지 실상 근무시간은 한 열두 시간은 된 거 같아요. 일곱시에 시작이면 여섯시까지야 와야 돼요. 여섯 시 십 분, 삼십 분에 오면 지각생이 되는 거야.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업무로 쳐주질 않았어요. 일 끝나고 시간이 끝났어도 청소를 하래요. 한두 시간 정도. 그것도 업무가 아닌 거죠.

여덟 시간 일하는 중에도 우리는 뛰어다니듯 기계 보러 다니고 화장실 갈 틈도 없죠. 여름이면 캠핑 다닐 때 쓰는 그 수도꼭지 달린 커다란 물통을 각자 한 개씩 달고 살았어요. 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닐로 대충 덮어두고.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수기에서 물 받아다 벌컥 벌컥 마시면서 일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나의 일상이고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빨리빨리 기계가 나인지 내가 기계인지 모르게 뛰어다니던 게 습관이 돼서 그랬는지 나와서도 뭐든 빨리빨리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거기서 일할 때 우리는 술도 빨리 먹는 거예요. 남들은 안주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는데 우리는 뗏이 급한지 후루룩 마셔 버려요. 우리가 가면 술집에서 좋아했죠.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라서 혈액순환은 아주 잘 되는지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그런 거 없고, “어우, 근육질이 튼튼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신방직 가면 살 쪽쪽 빠진다’고. 저도 거기서 한 15kg 이상 빠지더라고요. 하도 땀을 내고 뛰어다니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체력도 좋고 혈관질환 이런 게 없어요. 많이 뛰지, 기름진 음식은 한 달에 한 번 회식 때나 먹지, 그래서 그런가, 거기는 아프면 일 못 하는 곳이었어요. 아프면 안 돼.

밥 먹는 시간은 중간에 삼십 분이 있어요. 그 삼십 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휴게실 겸 식당 겸 옷 갈아입는 탈의실 겸, 딱 한 곳에 컨테이너처럼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옷에 묻은 먼지가 식판에 떨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고 국이랑 반찬 떠가지고 얼른 후루룩 먹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지 빨리 교대해주시니까. 그 삼십 분에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지금

같았으면 ‘진짜 그걸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은 해요. 밥도 중앙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보온 살짝 켜놓고 간이 식당에서 먹는 건데 메뉴는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뭐 어찌다 돌아가면서 돈가스나 특식 나온다 이런 거는 없었고 국도 김치국 같은 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끼리 어찌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지 설 때 김치 가져와서 기숙사에서 찌개를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들은 집에서 김치 같은 거 가져와서 드시곤 했어요.

한여름이면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으니 낮에도 밤에도 더워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당 같은 데서 에어컨 한 대 틀어놓으면, 밤에 다들 개인 이불 갖고 와서 맨바닥에 깔고 자고 일어나서 일 가고 그랬어요. 그 짓거리를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활 당연시했고 진짜 막 옛날에 시골에서 물 길러다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한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자부심보다.

우리가 일하는 근무환경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온몸에 먼지 다 묻고 막 숨이랑 코에 귀에 다 들어가고 하거든요. 머리를 안 감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먼지 터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없고 말털 같은 재질로 된 걸로 빗질하듯 털어야 돼요. 일일이 손으로. 공장 건물 자체가 시멘트 바닥에 콘크리트여가지고 열기도 그렇지만은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았고 화장실 위생은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요. 옷 먼지 터는 기계라도 있었으면, 잠시 잠깐 쉬더라도 휴게실에 에어컨이나 하나 달아줬으면, 샤워를 좀 여유있게 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좀 교대해가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그 텀, 그래요, 그거는 인원 확충이 안 됐다 쳐요, 일이 워낙 급하게 돌아갔으니까. 근데 화장실도 좀 개조를 해주고 휴지도 좀 좋은 거 넣어주고 일하고 나와서 옷 좀 털 수 있게 그 바람 부는 기계도 좀 꽃아가지고 설치도 해주고 부스도 설치해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아.

노조가 있긴 했어도 월급에서 노조활동비가 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그냥 기념일에 선물 하나씩 주는 거 정도? 가끔 직원들이랑 고기 귀먹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고기를 사줬죠. 상비약도 많이 없었고 일하다 체한 거 같아서 가스활명수 하나 먹고 싶어도 그거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다치거나 해도 웬만해서는 대일밴드가 고작이었고 연고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일 끝나고 한 번씩 회의하는데 윗분들이 오셔서 품질 개선을 위해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해주고 당부 사항 이야기할 때 건의를 해보기는 하는데, 말은 “알았다, 알았다” 했는데 많이 지켜지지는 않았어.

일 끝내고 동료와 함께 술 한 잔

당시에는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다들 목적이 달랐죠. 나잇대도 좀 있고 정말 연륜이 많은 육십대 위 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하고 자식들한테 조금 보탬이 되고 죽어야지’ 그런 분들은, 완전 베테랑이시죠. 그런 분들은 회사에 불만이 없고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이 훨 낫다, 회사가 있어서 내가 집안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일구고 사는 사십대, 이분들은 ‘내가 여기서 모아서 자식 결혼시켜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밑에 결혼해서 이제 막 어린이집 보내고 하는 애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당장 써야 될 돈 벌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버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삼사십대에 ‘그냥 회사 일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십대들은 초반에는 뭣 모르고 들어와 며칠 일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조금 견디는 애들은, 이십대 중반에 들어서 좀 견디는 애들은 꾸준히 견뎠어요. 이십대도 저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녔던 애들, 그래서 제 또래 애들 중에 조장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제가 유일했는데 나는 나만 힘들게 산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만난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게 있구나’ 개네들이 “야, 넌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데 오냐?” 물어 보면,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응,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러고 말았어요. 일할 때는 그 친구들이 나보다 월등하고 기계 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한테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도움받을 때가 더 많으니까 내가 대학 나와서 뭐 더 대단할 것도 없었고 되려 위축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들은 다 기도 세고 생활력이 엄청 강했죠. 그런데도 회사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뭐라고 하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나잇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보다 나오니까 이러나저러나 대꾸 자체를 안했고. 저 포함해서 젊고 몇 년 안 다닌 친구들은 “뭐가 불편하다, 좀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긴 했는데, 위에서 전혀 개선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는데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고. 위에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팀원들끼리 “너, 이것 좀 잘 해” 이런 말이 더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말을 올려도 위에 아예 올라가질 않았던 것 같으니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거죠.

작업할 때는 다들 자기 일 하기 바쁘고 조금 시간 나면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

죠. 그때 저한테는 회사 생활이 그냥 내 삶의 전부죠. 교대근무 자체가 개인적인 일을 딱 정해서 할 수가 없는 구조고 회사 사람들이랑 친목 이런 것도 다 회사 일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바깥 친구들 만나는 것도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만나기 힘들고.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조금씩 하기는 해도 길지 못했구요. 어디 나다닐 시간도 애매하고 성가시니까 근처에서 머리하고 화장품 사고, 회사 안에서, 근처에서 놀고 그런 거죠. 회사 근처 미용실, 화장품 가게, 치킨집 등 규모는 작았어도 서로서로 채워주고 먹여 살리는 동지가 되더라고요. 저 다닐 때도 임동 자체가 변화가는 아니에요. 건물도 오래되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그 작은 가게들을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였죠. 왜냐? 장사가 잘되니까요. 일신방식이 먹여 살리니까요. 진짜 허름한 치킨집이 있었어요. 페리카나라고. 진짜 오래, 한 삼십년은 됐겠네요. 거기 이모님이 회사 언니 결혼할 때도 오고, 애기 돌잔치도 오고 그랬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도움 주고,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안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 식구들과 함께 더 어울리고. 가족보다 더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제가 조장할 때 같은 조장 중에 오십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 애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그분이 술을 좋아하셨는데 일은 힘들고 하니까 우리 둘이 일 이야기 하면서 종종 술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회사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수퍼가 하나 있는데 일 끝나면 십분 만에 씻고 거기 가는 거야. 거기 장부 달듯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서 술 한 병 딱 집어가지고 먹고. 수퍼 아줌마 아저씨랑도 이제 친해져가지고 아줌마가 수퍼 방에서 뭐 이렇게 김치찌개 하나 해갖고 나오면 거기다가 술 한 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의 생활의 낙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구멍가게 평상이 두세 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또 관리자들이 오고 같이 합쳐서 놀기도 하고 우리들의 뒷풀이지요. 그게 또 그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었고.

남자만 관리자가 되는 회사

그때 우리 공장에 여자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직원 대부분은 여자들이었고 남자들은 관리자들이나 수리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죠. 관리직들은 사택도 받고 여공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여성들은 처음부터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거만 하고 들어

와서 그런지 위로 올라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나는 그게 좀 그랬던 거 같아. 이 회사에 들어와 기초를 닦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바쳐 일하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 보면 되게 야무지고 뭘 맡겨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중 단 한 명도 팔년을 성실히 일해도 조장, 팀장하고 끝이니까요. 팀장 위에 품질관리 하는 검수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든 게 현실이었어요. 조장, 팀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리 비면 위에 관리자들끼리 알음알음해서 누구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 대무조는 오만 원 더 주고, 조장은 칠만 원, 팀장은 십만 원 더 주고. 근소한 차이죠. 오, 칠, 구,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직원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했을 때 더 잘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자 남자는 수가 적고 여자 생산직들은 엄청 많지만 그 몇몇이 이 많은 여성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지시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관리만 잘 하면 애네들은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조장들 중에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자들끼리는 사소하지만 그 관리자분들 눈에 들고 싶어 하기도 했고, 회식이며 술자리며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자리 같았지만 ‘누가 있는데 너도 좀 나와서 같이 어울리자’ 하면 싫어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서로 좋은 인간관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관리직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회식할 때 반찬으로 고추가 나오면 그걸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고추가 실하네, 작은 고추가 맵네, 우리집 거보다 낫네, 요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반찬 삼아 별 불편함 없이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한두 번 기분 이상하고 ‘뭘 이래?’ 하다가 반복되면 그냥 ‘그런 갑다’ 하고 같이 웃고 말고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가요. 요새 같으면 성희롱이다 미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그냥 농담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었지만,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거나 “이건 아니다”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회사가 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

그때 우리는 복지가 좋다고 느꼈어요. 일단 기숙사비가 엄청 싸어요. 만 원도 안 되는 돈으

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밖에는 없잖아요. 거기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거 저축하면 다른 돈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이십사시간 다 돌봐줬어, 아이를.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 달에 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 같은 게 잘 나왔어요. 노조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줬는데 그걸 모여서 같이 구워 먹고 술도 먹고.

여름이면 사택 안에 수영장 옆에서 놀고 그런 단합대회가 종종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합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배구대회, 체육대회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친구들 회사 물어보면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고 정도 느끼고 그랬어요. 생산량 달성 경쟁을 하기도 했고 잘하면 고기도 한 번씩 내려오곤 했어요. 회사가 시설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런 거는 열악한데 사람들 멍치게 하고 인간적인 관리는 잘했던 것 같아요. 이탈을 막으려고 머리를 잘 썼죠. 회사에만 있는 젊은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단합대회를 많이 하고요.

월급은 늦게 주거나 그런 거 없이 내가 일한 만큼 이제 딱 그만큼 나왔고 상여금이 두 달에 한 번 나왔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이십에서 삼십 정도. 법에서 정한 딱 그대로 주지, 일이 힘들고 고되다고 더 주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퇴직금도 퇴사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일년에 한 번씩 지급됐어요. 그렇게 하면 더 적게 나온다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직금 동의를 돌리더라고요.

생산이 너무 안 나온다고 외부업체를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피드백 받고 그러는데, 일 시작하기 십분 전에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단합을 잘 해서 서로 간에 정신을 차려서 일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한테 생산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발표를 시키고 되짚어 생각하게 하고 그랬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발표를 하라는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피곤하고 바쁜데. 그나마 젊고 그런 애들이 하는 거죠. 무슨 표도 작성해라,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여라, 그랬죠 직원들은 싫어했어요. 사장님이 원하는 효과가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불량이 왜 나오냐,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몇 가지 이야기하면,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껌 같은 이물질 때문에 끌차가 미끄러지는 것 같다고 하면 그 굵은 도구를 사주면서 일 끝나고 삼십분씩 그거 제거하고 가라는 거죠. 생산직 직원들이 회사를 잘 가꿔야 애사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긴다 하여 막 벽도 닦고

구 기계들 녹슨 것도 닦고 칫솔로 액체나 크림 문혀서 닦으라고 하고요. 압튼 그런 크림이나 제거하는 기구 같은 것은 아주 잘 사다 줬어요.

내가 만든 실이 뱅뱅에 들어가고

회사는 우리에게 애사심을 키워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통해도 젊은 층한테는 교육받을 때 그때 잠깐뿐이고 다 먹고살려고 그냥 일하는 거죠. 교육받을 때는 윗분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이 일하는 게 이 옷에 들어가고 우리 회사에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바닥부터 잘 깔아줘야 그 다음 다음이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메인 이시다”, 이런 강조를 하곤 했어요. 우리가 만든 실로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고, 그것이 당시에 지오다노, 베이직하우스, 뱅뱅 같은 데 들어갔고, 그런 자긍심도 심어줬어요. 크로커다일 양말은 다 일신방식이었어요. 단독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원사로 만든 양말이 우리가 아는 메이커에 들어가 옷이 되고 양말이 되고, 신어보면 질도 좋았어요.

회사에서는 조회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제품 어디 내놔도 자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자존심 무너지지 마라, 너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매년 생산량, 판매량 발표하고 전월대비 그래프 보여주고 미흡한 부분들 개선해나가자”고 강조했구요. 게 중에 특출나게 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한 사람씩 서울에 있는 본사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회사 본사 건물을 사장님이 샀다는데, 좀 웃긴 게, 지금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 전체를 다 못 쓰고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런데 생산량이 안 좋아지면 층을 나눠서 팔아야 될 상황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려내야 한다, 그런 강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일해오면서 ‘와, 우리 회사 정말 좋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심어주기에는 그 소재로는 약했죠. 우리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기계들을 다 다뤄야 했기 때문에 기계 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품질을 위한 생산성 그런 거는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인 거지 서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뭘 국가 기밀이야.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틈도 없는 거죠. 다들 너무 바빠, 뛰어댕겨야 했으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한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침부터 죽어도 안 받아

들어지면 그만두는 것이지만, 차츰차츰 내가 거기서 그 힘든 거를 참고 견디다 보면, ‘애가 이것도 하네, 이런 것까지 해내네’ 해가지고 오히려 더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매를 맞은 사람이 더 매도 잘 맞는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그래 나도 이걸 버텼어’ 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일을 하고, 그 힘든 돈을 벌면서 동료들하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면서 술 먹고 단합대회 하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익숙해지고. 그 익숙이 빨라지는 거죠. 그 익숙도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신이 나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겪었던 고충은 이후 시대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일신방식을 나오다

일신방식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빠른 일거리에 파묻혀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도 않고 대우받는 것 같지도 않고 딱 여자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그 선에서 더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 회사에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회사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꼭 퇴사해야 되겠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면서 개인 사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나간다” 하니 “여기서 있던 일이랑 배운 것 등을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말 것을 서약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일신방식이 다른 회사에 비해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빠세고 힘들다고 들었어요. 물레방적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왕년에 전남방직에서 일해 봤어’ 그런 사람들도 일 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힘들다고. 저는 조장까지 하고 그만둔다 하니까 회사에서는 잡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랑은 고3 바이올린 레슨 사건 이후로 서로 말이 없어지기도 해서 그 당시에 조언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고, 나도 ‘공장이 아니라 어디 사무직으로 내 일을 좀 찾았으면 좀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일신에서 일이 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기본 힘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빨리 그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전공을 살려서 나

갔다던, 여러 군데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좀 더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방직 일도 했는데 이걸 못하랴

2009년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추천을 받아서 어디 회계사무실 사무직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일신방직보다 훨씬 더 박봉이었는데 '나도 사회 경험을 해보자' 하고 간 거죠. 근데 진짜 거기서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육년 동안 계속 교대근무하고 빨리빨리 하려는 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문서 하나 팩스 하나 제대로 보낼 줄 모르고 복사기 하나 만질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주 멘붕이 제대로 왔어요. 남들 다 하는 건데 팩스 앞면 뒷면도 구별을 못해가지고 막 더 긴장이 되고. 그런 간단한 업무를 물어보면 '재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소개로 들어가서 진짜 초보인 내가 남들보다 몇만 원 더 받았는데 '진짜 재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더 주지?' 사소한 일이만 원 때문에 시기 질투가 느껴지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다시, 나, 일신방직으로 돌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 거기서 일 좀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뭐가 안되고 해서 얼마 못 버티고 나왔어요. 일신 나오고 첫 직장에서는 멘붕 오고 탈탈 털려서 나왔죠.

그 후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 들어갔어요. 하남빛고을센터요. 처음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했는데 회원들한테 락커 키 주고 입장 받고 회원권 만들어주고. 좀 빨리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일신방직에서 하던 빨리 하던 습관이 거기서는 맞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어, 재, 일 좀 하네' 하는 거죠. 회계사무실에서 팍 죽었던 기가 거기서 살아난 거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젊으니까 일도 재미도 있고 아주 적응을 했죠. 육개월 만에 안내 데스크에서 윗층 총무부로 픽업이 됐어요. 거기서는 언니가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고 일년 넘으니까 이제 문서도 작성할 줄 알게 되고 기본적인 사무실 스타일에 적응을 했어요. 좋았는데 이년 되갈 때 쯤 광주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나오게 됐어요.

2011년에 인력 위탁 받아서 회사로 파견인력을 보내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업체 소속으로 LH공사로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팔년을 있었어요. 일이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

서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면서 일했어요. 일신에서 나와서 한 회사에 정착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죠.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다녔고 거기 다니면서 아이를 갖고 결혼도 했죠. 계속 다녔으면 더 좋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시험 볼 기회도 있고 했는데 결혼하고서 육아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힘이 들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이 의지가 많이 되어줬고 "이 직원 진짜 일 잘한다"고 위엿분들한테 말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시험을 떨어지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실업급여 타고 조기 취업 수당 타고 암튼 안 쉬고 바로바로 이어서 급여 탈수 있는 거 다 타고 또 취업하고 그랬네요. 지금은 계약직인데 사무직이고 자동차부품 수출하는 회사에 다녀요. 직원들 작업 시간 체크해서 급여 맞춰주고 자재 부품 이런 거 주문 넣고 이런 일을 해요. 공사에 있을 때 전문직처럼 일하다가 여기 와서 영수증 처리하고 전표 업무 보고 하다못해 쓰레기통 청소까지 하려니 처음엔 좀 버벅했는데 또 옛날 생각 떠올리고 하니깐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요. 이 일 하면서 나중에 경매업 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컴활 시험도 독학으로 자격증 땀고요. 예전에 하이닉스 잠깐 다닐 때 독학으로 워드 자격증 땀고 LH 다닐 때 사회복지사도 땀고요. 주거복지사도 딸까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혜택이 별로인 것 같아서 관뒀어요. 살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야 돼', 혹은 '필요해'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안 가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일신에서 나왔을 때 저한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일신방직 때 일을 떠올리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하랴' 아무튼 인생에 대한 생활력은 그때 다 길러졌어요. 일신방직 이전 삶도 그랬지만 그 이후 삶도 제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환경이 그렇게 흔할까? 흔하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거 같아. 거기를 다녀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많이 바뀌었죠.

일신방직에서 일한 게 있어서 그런가 저는 다른 일 하면서도 힘들 때는 투잡으로 택배도 한 번씩 뛰고 그랬거든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 별면 할 수 있어. 나 별 수 있어.' 일이 힘들고 피곤해, 근데 '나 일신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돼. 일이 무섭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절박하면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한테 일신방직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헤쳐나가는 그 힘, '내가 하면 된다'는 그 자신감은 요즘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워낙에 우리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저같은 사람이 제 주변에 보면 많지는 않아요. 진짜 귀해. 그래서 더 일신방직이 없어져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상황과 처지의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삶의 밑천을 만들고 내 삶을 꾸려갈 힘을 얻어야 하니까요.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생명

LH에 근무할 때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제 기대와 달리 결혼생활이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첫눈에 반해서 빠져들 듯 연애하고 엄청 좋아했고 아기를 갖게 되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댁과 갈등, 남편과 좁혀지지 않는 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고, 당시에 애들이 아주 어렸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친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것을 내 애들이 보고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클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살려면 내가 이혼을 해야겠구나' 독한 맘을 먹고 결혼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일을 쉬어본 적은 없었어요.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나한테는 애들이 두 명 있고 나가서 혼자 살아가려면 더 강하게 버텨야 되니까요.

저한테는 우리 애들이 인생 최고 선물이고 전부예요. 우리 딸이 이제 아홉 살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서 엄마 호강하게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비싼 가방도 사줄 거라고요. (웃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을 직접 보여주고 핸드폰 사진도 찍고요. "엄마가 갖고 싶은 거는 이거야. 이것을 가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돼. 그러면 언젠가 엄마한테 이거 사줄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하고 나는 그 뒷바라지 잘하고 그러면 돼요.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 하면서 방직공장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김은경

생애연보

- 1982년(1세) 전남 나주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남
- 1989년(8세) 나주초등학교 입학
- 1995년(14세) 나주중학교 입학
- 1998년(17세) 나주여상 진학
교내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접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이올린에 심취함
- 2000년(19세) 하이닉스 단기 취업
졸업 전 여름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하이닉스에서 현장 경험
- 2001년(20세) 광주 서강전문대학 회계학과 입학
기본 학비 외에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함
- 2003년(22세) 일신방직 입사
7년 후 퇴사
- 2009년(28세)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육개월 근무 후 퇴사
- 2010년(29세)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직으로 전환됨
- 2011년(30세) 인력위탁회사 취업
위탁 사원으로 LH공사에서 팔년 간 근무
- 2012년(31세) 첫눈에 반한 남편과 결혼
두 아이를 낳음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로 인해 둘째 뉘 즈음 협의 이혼
- 2019년(38세) LH 퇴사
- 2021년(현재) 자동차부품회사 사무직 근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